

공산사령은 중국사람을 죄악의 심연속으로 끌어넣었다 (련재—1)

자고로 중국을 신주라고 불렀다. 이곳엔 일찍 성현(圣贤)이 하세하였었고 찬란한 고대 신전문화(神傳文化)가 있었다. 이곳에는 걸출한 인물에 영검한 땅이 있으며 풍부한 물산이 있다. 하지만 최근 백년에 이르러 공산사령의 횡멸성적인 파괴로 하여 중국은 죄악의 심연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우선 중공은 중국사람의 신앙 권리를 박탈했다. 중국사람은 자고로 신불을 신앙하였다. 불가, 도가와 유가 3 가는 중화 전통 문화의 기초를 다져주어 이곳을 세계적인 문명 예의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중공이 정권을 빼앗은 이래 무신론으로 중국사람을 독해하였다. 어떤 사람은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선조들의 훈계를 잊고 개인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은 죄다 한다. 중공은 억지로 중국사람들이 마음이 선량해지고 도덕이 승화될 수 있으며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파룬따파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고, 선량한 파룬따파수련 군중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자행하여, 인성을 철저히 소멸하게 하였다.

중공은 중국사람들이 천지를 경앙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관적인 전통을 죽여버렸다. 자고로 위로는 천자, 아래로는 서민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지에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것을 아끼고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품덕, 부모님의 키워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

지만 중공은 하늘 땅과 싸우고, 당성으로 인성을 박해하였다. 중공은 중화의 대지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강, 호수, 바다를 오염시켰고 이곳을 전염병이 돌고, 독있는 식품이 만연된 땅이 되게 하여 해외에까지 전파되게 하였다.

중공은 중국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을 권리를 박탈하였다. 근면한 중국사람의 선조들은 후대에게 가옥과 선조의 유산을 물려 주었다. 그런데 중공은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교묘한 구실을 만들고 빼앗아 제것으로 만들었다. 많은 중국사람들은 집과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 다니면서 생존의 기본권마저 잃었지만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 정의지사들이 공평치 못한 일을 보고 고난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호소해도 도리어 감옥에 잡아넣고 입을 막는다. 중공은 자신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얻어 가지며 백성을 부려먹고 주색에 빠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명색 좋게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라고 말한다.

중공은 중국사람들이 후대를 낳아 키울 권리를 빼앗았다. 중국엔 자고로 자식을 키워 노후에 대비하며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는 말이 있다. 중공은 중국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후대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영아를 죽이는 것을 "기본국책"으로 만들어, 얼마나 많은 출생하지 못했거나 이미 출생한 중국인 후손들이 살해당했는지 모른다.

벌티모아시성탄축제행진에서 파룬궁단체가 우승컵을 탔다



성탄절 전야, 제 35 차 "벌티모어 시성탄축제 행진"의 평선 결과 파룬따

파단체가 100 여개 시위행진대렬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뢰선도(赖善桃)박사가(사진 오른쪽) 파룬궁을 대표하여 조직위원회 주석 톰-컬이(사진 왼쪽) 수여한 우승컵을 탔다.

심금을 울리는 신운뉴욕성탄만회 개막



지난 12 월 18 일 저녁, 신운성탄만회가 뉴욕브로드보이 비컨극장에서 막을 열었다. 신운예술단의 정채로운 연출은 중국전통문화를 전시했고 서방사람들에게 큰 계시를 주었다.

인도 교정에 떨기떨기 피어난 "련꽃"



지난 11 월 29 일 아침, 인도 반재로얼의 편벽한 향촌학교의 2,000 명 사생들은 교장의 구령에 따라 파룬궁을 련마하고 있다. (윗 사진)

한국민중들이 시위행진하여 2,900 만명 “3 퇴”를 경축



지난 12 월 9 일,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900 만명이 중공과 그 부속조직에서 퇴출함을 경축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거행하였다.

자체로 “3 퇴”한公安경찰들

한公安경찰이 파룬궁학원인 친척에게 <중공은 지금 매우 부패하여 나쁜짓이란 나쁜짓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파룬궁을 죽음으로 내몰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내가 접촉한 많은 파룬궁학원들은 좋은 사람이어서 나는 그들을 탄복한다. 중공은 많은 파룬궁학원들의 생체에서 장기적출하여 고가로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은 절로 죽음의 무덤을 파는것과 같다. 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이 보고 있다. 지금 기회가 있으니 누가 3 퇴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公安국의 경찰들은 자체로 인터넷사이트에 “3 퇴”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각성한 송흑자



2006 년 겨울, 흑룡강성 달련하진 정부 “610”악인들이 촌민 송흑자(宋黑子)를 시켜 당지에 나붙은 파룬궁 진상전단지를 찢어버리게 했다. 이리하여

그는 매일 30 원씩 장려를 받았다. 송흑자의 안해가 갑자기 뇌혈전에 걸려 움직일수 없게 되자 돈에 눈이 어두어진 그는 파룬궁학원들의 권고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진상자료를 찢었다. 어느날, 송흑자가 장작을 패다가 나무막대기가 튕기여 눈에 맞았다. 그는 너무 아파서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제야 대법제자의 말이 맞다는것을 안 그는 다시는 랑심을 속인 돈을 벌지 않고 외지로 일하러 떠났다.

작은 촌락 큰 기적

호북성무혈시 대법사진(大法寺镇)류주일대의 한 작은 촌락에서 큰 기적이 나타났다.

2005 년 음력 3 월중순의 어느 하루 12 시경에 한 살반 되는 녀자에 제제(济济)가 양어



장 늪가에서 놀다가 그만 1 미터 넘는 물에 빠졌다. 뒤늦게 달려온 제제어머니는 물에 뜬 머리칼을 보고 제제를 건져내어 그곳에서 멀지 않은 외가집에 달려갔을때 제제는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고 두눈은 굳어졌으며 호흡은 정지되었다. 이 위급한 시각에 법륜공학원인 외할머니는 파룬따파 사부님께 외손녀 제제를 구해달라고 빌었다. 빌고나서 사부님의 법상앞에 눕혀놓았다. 오후 4 시경에 제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신기해서 말했다. <3 시간동안 죽었던 애가 어떻게 살아날수 있을까?>

원래 제제는 외할머니집에 놀러 갔을때마다 <파룬따파가 좋다. 진선인이 좋다.>라고 외웠고 사부님앞에서 합장을 하곤 했다. 제제가 죽음에서 되살아난 것은 사부님을 존경하여 얻은 복이다. 지금 4 살인 제제는 파룬궁을 배우고 련마하고 있다.

왕공은 남긴 물건이 없다.



왕공(王恭)이 절강성 회계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친구 왕침(王忱)이 찾아왔다. 왕침은 왕공이 앓은 정교한 대자

리를 보자 욕심이 나서 한장을 달라고 했다. 왕침이 돌아간후 왕공은 마누라를 시켜 이 대자리를 왕침에게 보내주고 쥘방석에 앉았다. 후에 이 일을 안 왕침은 몹시 놀라고도 송구스러워 왕공을 보고 <난 당신이 여분이 있는가해서 달라고 했더니 참……>하고 말하자 왕공은 <당신은 나를 료해 못하고 있소. 사람이 되는 나의 표준은 생활상에서 물건은 남기지 않소. 물질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자유로운 공간이 있게 되므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라고 대답했다.